

충북지역본부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고객중심의 경영풍토 조성과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충북지역본부(박종운 본부장)는 9월 26일~27일까지 2일간, 충주 보훈휴양원에서 08 하반기 고객가치창조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워크샵 첫날에는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와 충북농업기술원 축산담당 차선세 지도관의 '한우 고급육생산에 따른 사양기술과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둘째 날에는 출장소별 고객만족도 추진과 CS향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전북지역본부



(전북한우협동조합 장성운 조합장 강연 중)

지난 9월 17일 전북 김제 농협북우촌 3층 대회의실에서는 2007년도 전북 지역본부 업적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워크샵을 가졌다. 또한 2008년 BSC 지표별 설명 및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불만족 요인의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고객서비스 향상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여부 점검 등을 위해 김철중 본부장과 18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북한우협동조합 장성운 조합장이 "경종농업이 없는 한우산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한우사업이 안전하다는 마인드 확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난 9월 19일 늦은 오후, 대구경북본부(김병도 지소장) 직원 23명 전원이 경북 의성군의 목원농장에서 워크샵 및 외부강사 초청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욱 이사의 '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및 질병예방'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워크샵에서는 핵심업무 역량강화 및 CS 향상 방안 및 이력 추적제 현황 등에 대한 입문별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그간의 연 4회 위생교육 및 등급제·이력제에 대한 소개와 교육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북지역본부장 외 24명은 지난 9월 26일 경남 김해에 자리 잡은 진영청소년수련관에서 '고급육 컨설팅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 워크샵'을 가졌다. 한국축산개발협회 영남지부장 신교철 박사의 한우개량에 대한 강의 후 2008년 자체고객만족도 결과분석 및 고객만족도 향상, 2008년도 내부평가 편람 이해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유부상) 직원 6명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5일, 1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남 창녕의 화왕산 농장을 방문했다. 농장을 찾은 등급판정사들은 사료주기, 풀주기, 사료포대 나르기, 농장 주변정리, 건조 사료정리 등으로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성수기의 바쁜 업무를 마친 후의 활동이라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도움을 주고 고맙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부탁한다는 농가의 웃는 얼굴을 보니 어느덧 피곤함은 보람으로 바뀌었다.

지역본부 사회공헌활동

대전충남지역본부



(국립공원 내 봉사활동)

하반기 대전충남지역본부 역량강화 워크샵을 마친 17명은 계룡산 국립공원의 수동골 등산로 정화 활동을 하였다. 국립공원이라 비교적 잠정비가 되어 있었지만, 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이라 환경 보호 및 관광자원 유지 측면에서 중요하여 다시 봉화활동을 하게 되었다.

전북지역본부

추석연휴가 막 지난 9월 18일 늦은 오후, 전주의 영아원 앞마당은 삼겹살 파티로 그 어느 때보다 맛난 냄새로 가득했다. 전북지역본부 18명의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삼겹살로 멋진 야외 저녁식사를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연신 땀 흘리며 고기를 구운 직원들이나 처음 야외 저녁식사를 한 아이들과 모두가 즐거웠던 하루였다.